

2025년 가을 학기
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—
빌립보서와 골로새서

메시지 6

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,
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,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름

성경: 빌 3:10-11, 엠 1:19-20, 롬 1:4

- I. “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”—빌 3:10.
- A.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지만, 10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체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. 이것은 곧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며, 그분을 충분히 알고 체험하는 것이다.
 - B.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, 그 후에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, 즉 체험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것을 추구했다.
 - C.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린 그분의 부활 생명이다—엠 1:19-20.
 - 1.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의 실재는 그 영이다—롬 1:4.
 - 2. 이 능력을 알고 체험하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화 되어야 하고,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.
 - 3.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알고 체험하려면,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해야 한다.
 - 4.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표현될 수 있도록 부활 능력이 일어날 근거가 된다.
 - D.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(마 20:22-23, 골 1:24)은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름으로써 그분의 부활 능력(딤후 2:11)을 체험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.
 - 1.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체험하기 위하여 추구하고 있었다.
 - 2. 그리스도께서는 고난과 죽음이 먼저 오고 나서 부활이 뒤따랐다.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그분의 부활 능력이 먼저 오며 그 다음에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 뒤따른다.
 - E.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활의 틀로 취해야 한다.
 - 1.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인간 생활을 하실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, 십자가에 못박힌 생활, 곧 십자가 아래서의 생활을 계속했다.
 - 2. 우리는 이러한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체험하고 표현할 수 있다.
 - 3.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은 그분께서 하나님께로 살기 위해, 인간 생명을 계속적으로 죽음에 넣으신 그리스도의 체험을 가리킨다—요 6:57.
 - 4. 우리의 생활은 인간 생명에 대하여 죽고 신성한 생명을 삶으로써, 이러한 틀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.
- II. “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”—빌 3:11.
- A.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룬 결과는 우리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는 것이다—빌 3:11.

- B. 뛰어난 부활은 탁월한 부활, 특별한 부활인데, 이것은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는 상이 될 것이다—계 20:4, 6.
1.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믿는 이는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,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—살전 4:16, 고전 15:52.
 2. 주님의 이기는 이들은 그 부활의 특별하고도 탁월한 몫을 누릴 것이다. 이 부활 안에서, 이기는 이들은 왕국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.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것이다—히 11:35, 26.
 3. 뛰어난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목표와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—빌 3:11-15 상.
- C. 뛰어난 부활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가 점차적으로, 계속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가리킨다—살전 5:23.
1.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죽은 영을 부활시키셨다. 그런 다음 그분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계속하여 우리의 혼과 우리의 죽을 몸을 부활시키시고, 결국 우리의 온 존재—영, 혼, 몸—가 그분의 생명에 의해,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옛 존재에서 완전히 부활하도록 하실 것이다—엡 2:5-6, 롬 8:6, 11.
 2.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생명의 과정이며, 상으로서 주어지는 뛰어난 부활에 이를 때까지 해야 할 경주이다—빌 3:11-14.
 3.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룰 때, 우리의 온 존재가 점차적으로 부활할 것이다.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생활은 부활의 과정이다.
 4.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룸으로써만 이 목표에 이를 수 있다—빌 3:11, 갈 2:20.
- D. 뛰어난 부활은 옛 창조물에서 나와 새 창조물 안으로 들어가는 부활이다—갈 6:15, 고후 5:17.
1. 뛰어난 부활 안에 있는 것은 옛 창조물의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 안으로 이끌리는 것이다.
 2. 뛰어난 부활 안에는 옛 창조물의 요소가 없다. 그보다 모든 것에 신성한 요소가 가득하다—계 21:5 상.
- E. 바울에게 있어서, 삶은 뛰어난 부활이신 그리스도였다—빌 1:21 상, 3:11.
1. 뛰어난 부활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사랑스럽고 귀하고 탁월한 인격이다.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옛 창조물에서 나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셨다—요 14:3, 20, 히 6:19-20.
 2.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는 뛰어난 부활이신 그분 자신이다—빌 1:21 상, 3:11.
- F. 빌립보서 3장 12 절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이 동일한 믿음으로 받아 함께 누리는 구원은 이미 획득했지만, 부활의 특별한 몫은 획득하지 못했다.
1. 이 몫을 얻기 위해서 그는 추구하고 달려야 했으며, 경주를 승리로 마쳐야 했다—딤후 4:7-8.
 2. 빌립보서 3장 12 절의 '추구하다'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'박해하다'와 동일한 단어로서 또한 '힘써 전진하다', '뒤를 쫓아가다'를 의미한다.
 - a. 바울은 상을 획득하고 성숙에 이르기 위하여 그러한 방식으로 경주했다.
 - b. 구원 받기 전에 그는 그리스도를 박해했다. 구원받은 후에 그는 전에 자신이 그리스도를 박해한 그런 정도로, 그러나 긍정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했다.
- G.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룸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뛰어난 부활에 이르러야 한다.